전북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구축 '맞손'

남원YWCA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북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와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양성평등과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다짐했으며,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남원·전주 지역 간 피해자들을 위한 연계, 지원활동이 늘어날 전망이다.

상담소 장신화 소장은 "양 기관은 상호 간 지속적인 협력과 실무 교류를 통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익 향상과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김미옥 여성가족과장은 "가정폭력·성폭력, 아동폭력, 노인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활발히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의료·경영 교류 통한 민간 네트워크 확대

대자인 CEO 아카데미 총동문회, 몽골 국립특수병원 방문

대자인 CEO 아카데미 총동문회(회장 서철교)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3박 5일) 몽골을 방문해 몽골 국립특수병원과 교류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는 대자인병원 이병관 원장,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강동오 회장을 비롯해 총 13명의 아카데미 동문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방문단은 몽골 국립특수병원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의 의료 시스템을 공유하고, 의료·경영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CEO아카데미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류 모델을 소개하며, 내년부터 몽골 특수병원에서도 CEO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갔다.

서철교 총동문회장은 "이번 방문은 단순한 친선 교류를 넘어, 의료와 경영 리더십을 나누며 상호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몽골 현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민간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몽골 방문단은 오는 9월 재차 한국을 찾아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교류를 통해 대자인 CEO 아카데미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와 몽골 경제계 간의 협력 또한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희성 기자

지동범 동물안과치과 원장, 전북대에 2천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수의대 출신으로 국내 수의안과 분야 권위자인 지동범동물안과치과병원 지동범 원장이 수의대 후배들의 학업 지원에 써달라며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에 따르면 지 원장은 전북대 수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동문으로, 학창 시절 선배들의 응원과 도움 속에 성장한 경험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자 꾸준히 기부해 왔다. 이번 기부금은 학생 실습과 교육용 수술실 장비·기구 확충 등 학업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전북대는 지난 14일 오후 2시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지 원장을 초청해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가 참석해 기부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지동범 원장은 "전북대 수의학과는 기부 문화가 잘 뿌리내린 곳"이라며 "이제 그 마음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공고 윈드오케스트라, 관악경연대회 대상

전주공업고등학교 윈드 오케스트라가 최근 세종에서 열린 제49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1946년 창단된 전주공고 윈드 오케스트라는 1학년 30명, 2학년 10명, 3학년 10명 등 총 50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2023년 제47회 대회에서 일반부 대상을 차지한 이후, 올해 다시 한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4년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이번 대회에서 학생들은 'March Blue Spring'과 'Flight of Valor' 두 곡을 연주, 치밀한 호흡과 아름다운 앙상블로 최고점을 받았다.

특히 올해 지휘봉을 잡은 김민수 교사는 첫해부터 대상을 이끌어내며 지도력을 입증했다. /장은성 기자

순창문화원, 광복 80주년 맞아 해방소나무 기념행사 개최

순창문화원(원장 전인백)은 지난 14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창초등학교 순창객사 앞에 위치한 해방기념비와 해방소나무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945년 해방 당시 선현들이 보여준 나라사랑 정신과 순창의 선비정신을 기리고, 이를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광희 순창부군수,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순창문화원 회원, 순창항일정신계승회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기념식은 순창문화원 박재순 사무국장의 해방기념비와 해방소나무의 역사적 의미 설명으로 문을 열었다.

실제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순창군민들은 금산에서 '나무 중 으뜸이라 불리는 소나무를 가져와 심으며 해방의 기쁨을 나라사랑 정신의 상징으로 남겼다.

이어 참석자들은 해방소나무에 막걸리를 올리는 전통 의식을 치렀다. 이는 선현들의 넋을 기리고, 그 정신을 후세에 잇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의식 후에는 전인백 순창문화원장의 만세삼창으로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순창북중 2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전인백 순창문화원장은 "순창은 예로부터 대의와 의리를 중시하는 선비정신의 고장이며, 매년 광복절 해방소나무 기념행사를 통해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광희 순창부군수는 축사에서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눈 선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번영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농협, 공공형계절근로자 폭염대비 물품 전달

전북농협은 최근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에서 공공형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쿨타올·넥쿨러·그늘막 등 폭염대비 용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이 함께 운영중인 '시도형 농촌인력중개사업'을 통해 추진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농촌 인력 수급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오상근 기자

군산부설초 오케스트라부, 학생오케스트라 최우수상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 오케스트라부가 지난 15일 함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경연에서 초등 앙상블 부문 최우수상(1위)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대회는 전국 규모로, 학교부문(초·중·고)와 지역부문 70여개 팀이 참가해 11~16일까지 6일간 경연을 펼쳤다. 이에 군산부설초 단원들은 홀스트의 「Jupiter, the Bringer of Jollity」(행성' 모음곡 중) 곡과 생상스의 「Bacchanale」('삼손과 데릴라' 중) 곡을 연주, 기술과 해석력, 균형과 조화를 두루 갖춘 합주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산림조합, 추석 맞아 '벌초도우미' 실시

진안군산림조합(조합장 송윤섭)은 2025년 추석명절을 맞아 조상묘 벌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벌초도우미'를 실시한다.

벌초도우미는 갈수록 고령화로 조상묘의 관리가 어렵고 물리적으로 벌초가 어려운 지역에 조상묘가 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하기 곤란한 경우들이 많아 이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산림경영지도를 전문으로하는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이 배치돼 묘지 현장답사와 벌초 작업지도를 직접 시행하는 서비스를 하게 된다.

특히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조상묘를 돌봐야 하는 실향민 등은 이 같은 벌초도우미의 시행으로 더욱 안심하고 조상묘를 맡길 수 있어 반기고 있다.

정천이 고향인 서울에 사는 A씨는 "한번쯤 가보고 관리도 제대로 하고 싶지만 살다보면 그렇게 잘 되지 않는게 현실이다"며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시행해 준다니 얼마나 다행이고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벌초도우미 신청기간은 추석 명절 2주 전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진안군에 조상묘 벌초를 원하시는 모든분이 신청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죽항동, 어르신 2가구 노후 주택 수리

남원시 죽항동(동장 임점숙)은 지난 14일,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2가구의 노후 주택 수리에 나섰다.

이번 집수리 지원사업은 남원시가 전북광역자활센터의 '주거환경 토탈케어 서비스 지원사업'에 공모 및 선정되어 무료로 진행, 곰팡이가 핀 벽지, 낡고 찢어진 장판, 페인트가 벗겨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들이 많았으나 수리 후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한 어르신은 "몇십 년 된 벽지를 바꾸고 나니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다."며 웃음을 지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평신협·따숨지역아동센터 '어부바멘토링' 성료

전평신협(이사장 김병학)은 따숨지역아동센터(센터장 한경순)와 진행한 '2025년 신협 어부바멘토링' 프로그램이 지난 14일 7회기를 끝으로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신협 어부바멘토링은 전국의 신협과 인근 아동복지시설의 결연을 통해 신협임직원이 취약계층 아동의 멘토가 되어 건전한 성장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 신협사회공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단위조합 신협, 아동복지시설이 10년째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전 7시부터 10시간 동안 전평신협 멘토 2명과 따숨지역아동센터 아동 30명, 인솔교사 10명이 참석해 대전화폐박물관과 대전오월드를 탐방했다. 특히 대전화폐박물관 견학은 앞선 금융교육의 연장선으로 진행돼 아이들이 화폐의 개념과 역사 속 시대별 화폐의 모습을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오상근 기자

비전대 간호학부, 의료·복지 봉사활동 펼쳐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는 지난 14일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의료와 복지를 아우르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는 독거노인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오후에는 장애인 20여 명과 물놀이를 했다. 특히 간호학부 교수와 학생들은 물놀이 전 안전수칙 안내와 준비운동을 지도했으며, 물놀이 중에는 낙상 및 신체 이상 증상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현장을 모니터링을 하며 안전 관리에 힘썼다.

이후에는 복지관 편의시설에서 지역 주민 대상으로 우울·불안 정도를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는 지역사회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통합 돌봄을 실현하고, 보건·복지가 연계된 원스톱 시스템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장은성 기자

남원 운봉읍,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은 새마을금고 희망나눔 사랑의 집수리 사업에 선정, 1일 1가구 방문 복지활동 중 발굴한 장애인·기초생활수급 독거 어르신 가구에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해당 가구는 20년 넘게 도배와 장판 교체가 이뤄지지 않아 벽지가 훼손되고 곰팡이와 냄새가 심각한 상태로, 총 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배와 장판을 전면 교체, 환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마련, 어르신은 "집이 새로 태어난 것 같다. 마음도 환해졌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장수호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김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제로타리클럽 중식 나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8일 국제로타리 3670지구 김제로타리클럽(회장 이장호)의 후원으로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승택) 이용 지역사회 장애인 300여명을 초청해 자장면 무료중식 지원과 및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제로타리 3670지구 김제로타리클럽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로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중화요리 전문점 친친과 함께 김제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참여해 자장면 배식과 식사 보조를 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장호 회장은 "이번 봉사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승택 관장은 "이번 행사로 함께하는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자원발굴과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들의 일상에 기쁨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